

원저

영화 『마더』를 통해 본 침의 의미 분석 -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

김송이* · 박규택** · 이학민*** · 박히준* · 이혜정* · 채윤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소

**Tyle C&P 연출부

***독립영화감독

Abstract

Analysis of the Meaning of Acupuncture in the Korean Movie 『Mother』 Through Interviews with Movie Professionals

Kim Song-yi*, Park Gyu-tek**, Lee Hak-min***, Park Hi-joon*, Lee Hye-jung* and
Chae Youn-byoung*

*Acupuncture and Meridian Science Research Center,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Direction, Tyle C&P

***Independent Film Director

Objectives : Korean director *Bong Joon-ho*'s movie 'Mother' is a story about a woman who struggles to save her son from an indictment of murder. This movie premiered at the 2009 Cannes film festival.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various roles of acupuncture in the plot from the perspective of movie professionals, including critics, writers and producers.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meaning of acupuncture as a subject matter in this movie. Participants who work in the film industry or are studying film were included. Survey questions were organized in a two part open-ended questionnaire and in multiple-choice form.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via e-mail or the subjects were contacted directly. Results: In this movie, acupuncture serves at least three roles. The first role it serves is as a symbol of the mother role in her son's life and in her community. Acupuncture also works as a conduit for communication and a means of earning a living for the mother. She strives to clear her son's name by discovering the real murderer through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R11-2005-014)

· 접수 : 2009. 11. 12. · 수정 : 2009. 11. 21. · 채택 : 2009. 11. 24.

· 교신저자 : 채윤병,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2-961-2208 E-mail : ybchae@khu.ac.kr

performing acupuncture. Finally, the acupuncture box is crucial in the son's understanding of the mother's role in the crime. Seventy-nine percent of those surveyed responded that acupuncture was an important motif in this movie.

Conclusions : These findings, in addition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acupuncture can serve as a useful context for mass communication in media.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acupuncture in the movi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of acupuncture modality today.

Key words : Acupuncture, Movie, Context, Mass communication

I. 서론

음식과 의술을 소재로 한 드라마 『대장금』은 평균 시청률 47%에 이르는 높은 관심 속에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食藥同源’이라는 치료와 예방으로서의 생활 속의 한의학을 좀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바 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를 통해 藥膳의 재조명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¹⁾. 대중매체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깊은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의료정보는 독자, 청취자, 시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이들의 의료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²⁾. 유명 가수의 유방암 발생 소식을 전해 유방암 진단검사 예약 수를 급격하게 늘리는 등 새로운 의료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돕고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³⁾. 침에 대한 기대감은 만성 통증질환에 대한 침 치료 효과에 대한 반응 정도를 증가시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은 질병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기도 하였다⁴⁾. 또한 침 시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에 따라 동일한 침 시술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달리 나타나게 유도하기도 하였다⁵⁾. 침에 대한 인식이 질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2009년 5월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한 화제작으로, 모성의 집착과 광기에 대한 영화이다. 영화 속의 엄마는 눈의 희번덕거림으로 통곡을 전달한다. 드라마 『전원일기』, 『사랑이 뭐길래』, 『엄마가 빨났다』 등에서 가장 파스하면서도 한 많은 한국적 모성을 보여주

었던 배우 김혜자의 모습은 영화 『마더』에서 극단의 광적인 모성애로 재탄생된다. 영화 속 마더(mother)는 자신에게 생명을 준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들에게 농약을 먹여 죽일 수도 있는 머더(murder)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엄마는 극중에서 무면허 침구사로 나와 사회적 현실 속에 떨시당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강한 엄마와 대비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미지에 적절한 위치의 직업으로 침구사가 설정되었고 그런 가운데 극중 침 시술은 여러 가지 의미로 극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화적 소재, 도구들은 그 나름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영화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재해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구의 사실성’과 ‘도구의 영화적 의미(재해석)’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영화를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화 『마더』에서도 ‘침’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침에 대한 인식에 영화적인 의미를 더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마더』 속에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소재 중 ‘침’에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영화적 의미와 여기에서 확장된 새로운 ‘침’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영화 제작 현장 및 영화 『마더』가 특별상영된 2009 부산국제영화

제(2009년 10월 9~14일) 현장에서 영화 관련 종사자들 가운데 설문에 응한 대상자의 설문지를 받아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주어져 짧은 시간에 응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종이 형태 혹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한 후 응답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1) 영화 『마더』의 전개 과정에서 등장하는 ‘침’이 영화적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2) (영화 『마더』와는 상관없이) ‘침’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영화적 소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이 주어졌고, (3) 영화 『마더』에서 사용된 침 혹은 한의학적 소재에 관한 9개의 객관식 문항이 주어졌다. 또한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평점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영화 속에서의 침의 의미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자유로운 기술 외에도 기억을 돕기 위해 영화 장면 가운데 침이 등장한 8개 장면의 대본을 함께 제시하여 각각의 장면에서 침의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객관식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표기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대상자의 답변에 기반하여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답변을 발췌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생한 전달을 위해 답변 내용을 이탤릭체로 표기하였고, 이는 질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III.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총 19명의 영화 관계자들이 설문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8%, 여성 42%의 분포를 보였고, 연령은 평균 28세였다. 42%의 대상자가 영화 연출, 기술 스태프 등 영화 제작을 담당하였고, 관객평론가 및 영화지 기자 등을 포함한 평론을 담당하는 대상자는 16%였다. 그밖에 37%가 영화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사되었다. 영화 관련 업무의 경력은 평균 37개월, 중앙값 24개월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Gender(n, %)	Male	11(58%)
	Female	8(42%)
Age	28.4±4.0	
Occupation	Film producers	8(42%)
	Movie critics	3(16%)
	Students	2(11%)
	Others	5(26%)
	No response	=1(5%)
Working duration (month, mean±SD)	37.1±61.8(median : 24)	

SD : standard deviation.

2. 영화 『마더』에서의 ‘침’의 영화적 의미

1) 영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 ‘침’의 의미

(1) 영화적 소도구로서의 ‘침’

영화 전반에서 침은 엄마로 하여금 ‘우발적인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소도구이자 죄책감을 씻는 심리적 장치’로 쓰였다. 침의 치유적 기능을 이용, 이를 매개로 사건의 전개에 사용될 뿐 아니라 영화의 주제에까지 맞닿는다. 침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었다. ‘영화 속에서 침은 매우 자연스럽게 엄마에 의해 등장한다.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사용하는 침은 매우 자연스럽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은 ‘그 침’이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잘 안다. 침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설득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엄마가 처음으로 침을 꺼내는 순간, 아무도 뜯어 물어보지 않는다. 감독은 ‘이상한 침’을 이상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자 침과의 관계에 대한 핵심이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 아들 친구와 엄마의 관계, 동네 사람들, 죽은 사람, 노인, 살인 사건, 벤츠 사건, 쌀떡소녀 사건 등등 인물과 사건 모두 이상하기 그지없지만 이상하지 않게 흘러간다..... 영화의 하부-텍스트로서 섹스가 매우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뽀족하게 생긴 침으로 은밀한 허벅지를 직접 찌른다는 것을 성적인 은유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침은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말한 이중적인 위치를 갖는 침은 부실한 아들을 상대하는 부족한 엄마가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침은 이 영화 속에서 중요한 메타포이자 중심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영화적 도구임에 틀림없다.’

또한 침은 ‘일관성이 있는 극 전개를 가능케 해주는 영화적 장치’이자 또한 ‘극의 긴장고조’에 관계되며 결국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도구’이며 ‘주제와 연결되어’ 사용된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정서와 분위기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설정과 상징들, 침은 이런 설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구’로 ‘시종일관 은근한 정서를 만들었던 침과 침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엄마의 역할이 이 영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2) 엄마의 캐릭터를 규정짓는 ‘침’

주인공인 엄마는 약재상을 운영하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침술사로서 일종의 생계 수단으로서 침을 이용한다. 때론 자신을 향해 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첫째로는 본능을 억압하는, (성적) 욕구 및 욕망을 억제하는 도구로서의 침, 두 번째로는 반대로 쾌락의 도구로서의 침’으로 사용되었다. 주인공의 캐릭터를 규정짓는 침의 의미는 다음의 언급에서 더욱 자세하게 나타난다. 『마더』에서 ‘침’은 엄마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물리적 도구이며, 관객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도구로 기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의 사건을 추동시키는 결정적인 증거로 기능하기도 한다. 일단 엄마는 동네 부인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침을 놓아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인들과의 친분을 만들고 근근이 생계를 이어나간다. 이때 ‘침’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의 생활 및 위치를 설명하는 ‘도구’적 기능을 한다. 영화 중반부까지만 해도 이 기능으로만 보여 지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즉, 정상적이지 않은 삶,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엄마의 위치를 설명한다. 영화 후반부에는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엄마의 것이라고 인지할 만한, 엄마의 분신과도 같은, 침통이 범죄현장에서 아들에 의해 발견되고, 이것이 다시 아들에 의해 엄마에게 전달되었을 때 엄마는 최후의 광기에 휩싸인다. 이때 침통은 범죄현장에서 그것이 발각될 뻔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아들인 도준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지금은 당장 눈치 채지 못하더라도) 앞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기억’하리란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다. 이때 침통은 일상적인 소품으로부터 잠재적 ‘발각’의 가능성을 내재한 혼돈의 도구로 탈바꿈

된다. 영화의 말미, 평소에 자신이 다른 부인들에게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롭게 해주는’ 허벅지 근처에 침을 놔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허벅지에 침을 놓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난다. 이때 침은 앞선 두 개의 의미와는 또 다른 제3의 의미를 창출한다. 앞서 일어난 이 모든 혼돈을 모두 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자, 그 모든 것을 잊고 다시금 도준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예전의 엄마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마법과도 같은 주문이다. 다시 이 마법과도 같은(하지만 허상과도 같은) 주문에 의지해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엄마의 모습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극단적 모성에-살인마저도 은폐할 수 있는-의 다름 아니었을까. 아마 이 침 시술을 계기로 엄마는 앞선 모든 일을 잊을 것이다. 잊었다고 착각이라도 할 것이다. 침을 놓고 부인들 사이에 들어가 선보이는 흐느적거리는 춤사위가 그것을 확연히 예견한다.’

(3) 침, 모성, 기억의 양면성

침은 치료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독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찬양하는 모성자체의 양면성, 혹은 모성이 작동하는 방식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또한 혈자리 지압이나 침 시술을 통해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잊고 싶은 기억을 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4) 동양적, 한국적 소도구

몇몇 대상자들은 침의 선택이 한국적, 동양적 정서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답답함과 압박감’을 대변하며, 침은 이에 대한 ‘엄마의 어떤 대표적인 표상,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침’ 고유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감독 특유의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코드들이 얽혀있는 상황, 예컨대 ‘소녀가장, 원조 교제, 권력에 눌려 사는 서민,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식은 억척스럽게 아끼는 엄마 등의 한국이라는 사회에서의 엄마라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이자, ‘억압받는 위치(무면허 침술사)이기에 주는 정서적 신뢰라는 애매모호한 뉘앙스’를 주인공의 직업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현대 의술에 대비하여 한의학이 주는 따뜻한 정서가 버무려진 “침 한 방 놔드릴게요”라는 말이 주인공의 캐릭터와 극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었다.

2) 각 장면에서 사용된 ‘침’의 의미

영화 『마더』에서 침이 영화적 소재로 나온 주된 장면 8개에서 침이라는 소구의 영화적 의미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각 장면의 자세한 대사는 부록에 기술되었다.

(1) 사진관/밤

엄마가 불임인 사진관 여주인에게 임신에 도움이 되는 침 시술을 하며 돈을 빌리는 장면(Fig. 1A)

이 장면에서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침의 역할이 드러난다. ‘엄마가 매일 마주해야하는 삶의 고통, 특히 경제적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이자 ‘돈을 빌리기 위한, 자신의 담보이자 능력’인 것이다. 더불어 무료 침 시술에 대한 대가로 돈을 빌리려는 이 장면이 ‘순진한 여자한테 사기 치는 느낌’으로 다가오며,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비춰졌다.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침 시술에 대해 우려하는 언급도 있었다. 한편, 영화적 분위기를 위한 도구로서 ‘영화 전반에 걸친 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가장 야한 장면’으로 꼽



Fig. 1. The most meaningful still cut of the storytelling on acupuncture in each scene

A : A photo studio. B : An herbal medicine store. C : A neighborhood house. D : A jail 1. E : A jail 2. F : A secondhand shop. G : A bus stop. H : In the bus.

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침을 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은밀하면서도 신뢰로 가득한 행위인가. 살과 살이 침을 매개로 맞닿는다! 여러 의료행위 중,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2) 약재상 - 앞 길

사장이 엄마에게 불법 침 시술에 대해 협박하는 장면(Fig. 1B)

이 장면을 통해 불법 침 시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침은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무면허 시술이라는 불안감을 이용해 사장은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 권력자(사장)-서민(엄마)의 구도를 성립시켜 긴장감 있게 설정했다. 이 장면에서 관객은 엄마의 침술이 불법임을 처음 알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한의학에 대한 불법의료행위의 인식은 일반사람들이 다소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급도 있었다.

(3) 가정집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동네 아줌마들을 상대로 침 치료를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장면(Fig. 1C)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침 시술 행위는 ‘한국의 정서가 깊게 깔려 있는 의료공간’으로 여겨졌으며, 이 행위는 ‘경제적 수단인 동시에 고통(누명 쓴 아들)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 ‘정보 수집의 수단’이자 주인공의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장면으로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주부들의 여가활동 혹은 사치’로 보이기도 하며, ‘불법이긴 하지만, 엄마가 침을 놓는다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4) 교도소 1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에게 농약을 먹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도준에게 엄마가 기억을 잊게 해주는 침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 도준은 이에 “왜 ... 침놔서 죽이게?”라고 응대한다(Fig. 1D).

이 장면은 ‘모성의 양면성과 모성작동방식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엄마는 아들의 고통을 능히 자식을 보호하는 모성(침)으로서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도

준을 죽이는 도구이고, 모성의 광기다.’ 또한 ‘모성이 자식을 살피는 마음이라면 이는 목적이 옳이 자식에게 있어야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엄마는 도준이 고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도준의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혹은 도준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자기위안으로 침(모성)을 사용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모성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머니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침은 상징적 의미로서 ‘등장인물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구’이며, ‘인간관계마저도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중심’에서 있다. 도준의 “왜, 침놔서 죽이게?”라는 대사는 ‘마치 원래 정상인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영화 전반적으로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를 오가고,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망각하고, 망각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기억하는 모호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아들에 대한 엄마의 불안이 기정사실화되는 순간’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해 침은 ‘방패이자 무기’가 되고, ‘믿고 싶은 희망’이자 ‘믿음’이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흉기처럼 생긴 침’이 주는 신비로움 및 ‘실제 이러한 침자리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게 하며, 동시에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세련되게 깔아놓음으로써 ‘끔찍한 기억을 잊게 해 준다는 것과 침 자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메타포까지 사건의 결말을 그대로 암시’하고 있다.

(5) 교도소 2

범죄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도준에게 엄마가 ‘저 주반은 관자놀이’를 지압하라고 말하는 장면(Fig. 1E)

이 장면에 대해서는 희극적인 분위기를 많이 언급하였다. 기억을 되살려준다는 지압은 ‘관자놀이를 푹 푹 빙글빙글 돌려대는 것으로 배우들에게 숨은 기이함을 찾아내는 것 같으며’, ‘모성의 비주열적 회화화’, ‘영화적인 재미나 표현’으로 여겨졌다. 일종의 ‘기본 전환용.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미신이나 징크스 정도’, ‘그 시대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단순한 민간요법’의 비중으로 대부분 가볍게 여기고 있다. 한편, 아들의 지적 상태를 염두하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든 인정받고자 하는 일종의 인정투쟁(認定鬪爭)의 과정’으로 ‘결국 영화의 비극적인 전개도 이런 인정투쟁의 과도함이 도준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고, 특히 ‘정상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자의 발버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

면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6) 고물상

엄마가 의료봉사를 핑계로 도준이 기억해 낸 단서인 고물상 노인을 찾아 온 장면(Fig. 1F)

이 장면에서 침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장 해제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침술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침술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묘사’ 된다. 또한 앞서 여러 장면에서 언급되었듯이 ‘엄마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한 수단’이 바로 침술임을 보여준다. 결국 침은 ‘정보 수집 수단’이자 ‘경찰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경찰증 같은’ 것으로, 침술 봉사를 통해 ‘잠재적 범인에게 접근’하여 ‘사건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침통은 엄마가 ‘침 봉사’라고 둘러대며 고물상 할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데 쓰이고 끝이어 충격적인 살인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어느덧 우리의 뇌리에서 깨끗하게 잊혀지지만, 도준에 의해 발견되어 엄마에게 전달되는 장면에서 다시 불에 거슬린 상태로 불현듯 부활했을 때 엄마와 관객에게 동시에 숨막히는 공포감을 준다. 관객은 어느덧 엄마의 범죄를 지켜본 최초의 목격자이자, 그녀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공범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때 침통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엄마의 분신 같은 존재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7) 버스정류장

도준이 고물상 화재 현장에서 주운 침통을 엄마에게 주는 장면(Fig. 1G)

이 장면에서 침은 ‘반전을 알리는 도구’로 제 역할을 다한다. 이는 ‘지금까지 침과 침통이 영화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반전’이다. 이 장면은 ‘자신의 침(모성)이 지닌 의미를 해자 스스로 목도하게 되는 장면, 자신의 모성이 지녔던 사랑과 광기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자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불법이나 부도덕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가 잃어버렸던 침통을 받음으로서 제3자(여기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엄마 자신의 죄책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장면이다. 영화적으로 ‘극적 긴장감 고조시키는 수단’으로서 침통이 사용되었다. 그밖에 침의 불결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8) 관광버스 안

엄마가 스스로 기억을 잊게 해준다고 했던 자리에 침을 놓고 일어나 춤을 추는 장면(Fig. 1H)

이 마지막 장면은 ‘누군가를 보살피고, 해치며 살면서 쌓아온 자신의 상처들을 스스로 침을 놓으며 잊으려 발버둥 치며 살아온 삶. 모성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살인의 기억을 잊고 싶어 하는 바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죄책감을 심리적으로 떨어내는 도구’, ‘자기를 구원하는 도구’로 ‘일종의 심리적인 상징’이다. ‘침은 망각을 부르는 마법’처럼 여겨지며 이는 ‘마지막 춤을 추는 장면과 이어지면서 일종의 주술적인 차원으로 마무리’된다. 이 장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 거대한 영화의 마지막이자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장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자신의 죄악을 알아버린 엄마는 침을 놓는 자기 자신만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죄의식을 다시 잊어버리고자 하며 아무 것도 기억하지 않으며 살았던 한국의 엄마로 돌아가기 위해 역광을 받아 얼굴도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엄마들 틈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결국 허벅지에 침을 놔야 할 사람은 엄마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세상의 엄마는 모두 허벅지를 찌르며 살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관광버스 막춤. 영화의 주제이자 영화의 동기가 되었던 장면. 침은 매우 중요한 설정이 되어 있다. 엄마를 다시 살게 해주는 희망을 주지 않는가.’

3. 영화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재로서의 ‘침’의 의미

1) 신체적 치료, 혹은 통제 및 정신적 측면의 조절 도구로서의 침

침의 본질적인 기능, 치료의 수단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많은 대상자들이 언급하였다. 단 특이한 점은, 현대적 의미의 질병 치유의 의미보다도 조절, 통제의 개념이 더욱 강하게 반영된 치료 도구로 인식함을 볼 수 있었다. 침이 꽂혀있는 신체 자체가 주는 긴장감으로 생성되는 미장센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무협지에서 나오는 무술인처럼 타인의 신체를 한의학적 이론을 통해 통제하는 식이다. 한편 일반 양방 치료와 달리 한방 치료, 침은 정신적 조절에 많은 부분 관여할

Table 2. Responses to Each Question

	Total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Totally agree	No response
Question 1	0 (0%)	1 (5.3%)	2 (10.5%)	6 (31.6%)	9 (47.4%)	1 (5.3%)
Question 2	0 (0%)	2 (10.5%)	4 (21.1%)	10 (52.6%)	2 (10.5%)	1 (5.3%)
Question 3	0 (0%)	1 (5.3%)	5 (26.3%)	7 (36.8%)	5 (26.3%)	1 (5.3%)
Question 4	0 (0%)	3 (15.8%)	1 (5.3%)	9 (47.4%)	5 (26.3%)	1 (5.3%)
Question 5	0 (0%)	3 (15.8%)	2 (10.5%)	10 (52.6%)	3 (15.8%)	1 (5.3%)
Question 6	4 (21.1%)	10 (52.6%)	3 (15.8%)	1 (5.3%)	0 (0%)	1 (5.3%)
Question 7	0 (0%)	0 (0%)	8 (42.1%)	1 (5.3%)	5 (26.3%)	5 (26.3%)
Question 8	3 (15.8%)	7 (36.8%)	6 (31.6%)	2 (10.5%)	0 (0%)	1 (5.3%)
Question 9	0 (0%)	1 (5.3%)	4 (21.1%)	12 (63.2%)	1 (5.3%)	1 (5.3%)

In case of Question 7, responses indicates as follow : Totally disagree, change from positive to negative ; Disagree, change from negative to positive; Neutral, no change (still positive) ; Agree, no change (still negative) ; Totally agree, be unconcerned.

것이라 여겨졌다. 따라서 감정을 침을 통해 조절한다는 식의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

2) 전통적인 침에 대한 다양한 관점

한국적인 느낌의 영화에 한의학적 소재들이 쓰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전통적 이미지를 가진 침이 현대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의술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젊은 한의사라는 캐릭터가 주는 독특함(과거와 현재의 조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편 전근대적인 의료영역이자 민간요법의 하나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주술 효과와 연관된 이미지들이 언급되었다.

3) 상징적 도구로서의 침

기존의 기능성을 강조한 측면의 침이 아닌, 영화 『마더』에서처럼 더 넓은 의미의 영화적 장치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극적인 상황의 열쇠와 같은 소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침이 의술을 행하는 도구이자 흥기가 될 수 있다는 침의 양면성, 침 경험의 특이성(침을 경험하기 전에는 막연히 두려운 반면 경험 후에는 편안하고 개운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전후의 다른 느낌이 흥미로웠다는 의견, 성적 의미(영화 『마더』에서 ‘침’의 역할에 대해 몇몇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통속적인 열녀전에서 과부들이 성욕을 참기 위해 허벅지를 바늘로 찔렀다는 이야기의 변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등 기존의 의미에서 확장된 상징적 도구로서의 영화적 소재로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그밖에도 많이 다뤄지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신선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반대로 침, 한방 치료, 한의원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비교적 일상성이 떨어지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상징이나 은유가 있지 않고는 영화적으로 자주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4. 영화 『마더』에서 사용된 침 관련 소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영화 『마더』에서 사용된 침 관련 소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한 객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은 각 문항별 답변의 빈도와 비율을 분석하여 아래 표에 기술하였다(Table 2). 각 문항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비율 합하여 각 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로 간주하였다.

총 78.9% (n=15)의 응답자가 영화 『마더』에서 ‘침’은 영화적 전개를 위한 소재로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영화에서 설정된 주인공의 침술사라는 직업이 주인공의 캐릭터에 영향을 미쳤으며(n=12, 63.2%), 이야기 전개상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n=12, 63.2%). 또한 침술사라는 직업, 또는 침을 놓는 행위가 갖는 상징적 의미 또한 크며(n=14, 73.7%),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n=13, 68.4%). 반면 영화 『마더』를 통해 침 및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3.7%(n=14)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답변(n=8, 42.1%)

및 관심이 없다는 답변(n=5, 26.3%)이 우세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무면허 침구사로 묘사되는 주인공의 직업이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세계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이 한국에서 침 시술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한 침이라는 의료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2.6%(n=10)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향후 한의학적 소재가 영화에 사용된다면 흥미로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8.4%(n=13)의 대상자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영화 『마더』에 대한 전반적인 평점은 88.1±9.9점으로 답하였다.

IV. 고 찰

드넓은 가을 들뜬에 멍한 표정으로 낮이 나간 듯한 얼굴로 춤을 추며 엄마가 나타난다. 이상한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유체 이탈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는 미친 여자 혹은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영화 첫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 즉 고속버스 안에서 가만히 차마를 건어 올리고는 ‘오금쟁이 위로 5치, 3치 부위’ 침을 놓은 후 춤추는 사람들 틈새에 끼어 춤을 추는 엄마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한국적 사회상을 그만의 방식으로 드러내고⁶⁾, 영화적 은유와 상징이라는 메타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⁷⁾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 영화의 최근 추세 또한 기존의 비판적 접근이나 사실주의, 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반어적이면서도 이미지화 된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⁸⁾.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직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침구사라는 위치, 그리고 영화의 반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도구 가운데 하나인 ‘침’이 영화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영화의 주요 소도구로 사용된 침에 대한 이미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단순히 기능적 측면으로만 치우쳤던 인식을 넘어 대중매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소재라는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실제 영화 『마더』에서의 침은 정규 한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불법 침구사의 경제적 도구이자 대인관계의 매개체,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이며, 또한 영화 마지막 주제를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또한 향후 영화적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침의 확

장된 의미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조절 도구이자 전통적이면서도 전근대적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주술적 영역과 현대에서도 유효한 치료도구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 한국적 소재, 그리고 여러 상징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많이 다뤄지지 않은 신선함이 있는 영화적 소도구로서의 역할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 가운데 하나인 영화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 수단 가운데 하나인 ‘침’의 의미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혀 장기적으로는 침 치료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노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침이 인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개봉한 루게릭병을 다룬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에서 양방 치료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 한방 치료 시술을 택하는 장면이나, 드라마 『탐나는 도다』에서 등장한 조선시대의 미용 침 시술, 그 밖에 다수의 무협지나 무협영화에서의 한방 치료는 신비할 정도로 뛰어나거나, 불법 시술도 공공연히 자행될 만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치료 효과에 대해 검증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희화화되어 개그코드의 일부가 되어도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의료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교육과 검증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는 한방 의료 현실은 그 어디에도 없다. 본 연구에서 영화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영화에서 사용된 ‘침’은 도구의 사실성을 통한 현실 반영은 물론,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관객으로 하여금 또 다른 환상이나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을 갖는 오브제(objet)⁹⁾로서의 기능 또한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 인터뷰에서 허벅지 부위의 침 자리의 설정에 대해 영화의 감독 봉준호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한의학, 동양의학 종사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한의학 지식을 전파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뭐 영화에서 그런 창작이 많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사실 허벅지에 그런 침을 놓았을 때 일종의 어떤 약간이나마 망각효과라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풀린다거나 그런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 같은 책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와 박은교 작가의 창작이었구요. 대신 영화적인 고민은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침을 났을 때 그 장면이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슬퍼 보일까? 한 여인이, 마더가, 어머니가 누가 침을 놔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에 침을 놓는데 그곳이 어디였을 때 가장 슬퍼 보일까 목에 놓을 수도 있고 손등에 놓을 수도 있는데 치마를, 여성으로서 치마를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허벅지에 이렇게 났을 때 되게 여성적이면서도 쓸쓸하면서도 슬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허벅지 침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영화적 설정에서 침의 의미와 경혈의 의미가 영화적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속성이 일부 왜곡될 수는 있지만, 극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함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의 소도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영화적 상징을 내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의 의학적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그 어떠한 판단의 대상도 될 수는 없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 이상 의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지식을 전달할 필요나 의무는 없다. 이 시대에서 사회적 통념상 그럴듯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화로서의 이야기 전개는 가능하다.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오독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나, 의료인의 관점에서는 영화, 혹은 대중매체에서 줄 수 있는 2차적인 정보의 영향 또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영화 『마더』에서 그려진 한의학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¹⁰⁾. 하지만 본 영화에서 그려진 침 시술은 정식 한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학적 근거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침 치료’라는 가정하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네 아줌마에게 시술한 침은 어깨, 발가락 주변에 어떤 의학적 원리도 없는 마구잡이로 자침한 것으로 보인다. 아픈 곳에 자침하는 아시혈 요법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저급의 침 시술법이 비취지면서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이 평가 절하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다. ‘저주받은 관자놀이’로 언급된 太陽穴은 眼下瞽後一寸에 위치하는 經外奇穴 중의 하나로서 두통, 현훈 등에 다용되는 경혈이다. 아직까지 이 부위의 지압이 기억을 증진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 益氣調血, 扶本培原하는 작용을 지닌 관원(CV₆), 중완(CV₁₂), 단중(CV₁₇), 혈해(SP₁₀), 족삼리(ST₃₆) 등 경혈 부위에 침 자극을 통해 기억력 증진에 대한 효과가 실험적으로 검증되기는 하고 있으나¹¹⁾, 혈관성 치매 등에 있어서 침이 기억장애를 완화한다

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다¹²⁾. 기억을 잊게 해 준다는 오금쟁이 위로 5치, 3치 부위의 혈위는 알려진 361개의 경혈 중에 해당되는 경혈은 없으나, 361개의 경혈 외 경외기혈이 다수 존재하다. 엄마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둔 나만이 아는 혈자리라고 설명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방처럼 자신만의 혈자리 개념의 비방보다는 기존 경혈의 운용 면에서의 비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불임인 사진관 여주인에게 엄마는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한약과 함께 침을 시술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침을 시술한 경우 임신의 성공률이 1.65배 높다는 체계적 문헌고찰연구가 발표되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침의 효과는 인공수정을 하면서 침 시술을 병행했을 때 임신 성공률이 높다는 것의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여성의 임신능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고려 없이 단순 침 시술만의 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화 속에서 돈을 꾸는 대가로 침을 시술 할 때 생기는 통증에 대해 “아프지 않게 침을 놔주겠다”는 대사를 통해 통증을 시술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 언급된다. 침 자입 시에는 어쩔 수 없이 통증이 발생한다. 침 시술 시에는 산, 마, 중, 창 등의 득기감과 함께 일정 정도의 통증이 수반된다¹⁴⁾. 한의학에서는 침 시술 시에 치료효과와 연관되어 있는 득기감을 중시하고 통증을 일부러 유발하지도 않고 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자침 시 통증은 경우에 따라 수기법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득기감을 유발하면서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가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 부위나 환자의 피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젊은 세대 사람들의 침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은 침과 함께 수반되는 통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통증에 대한 정도는 침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⁵⁾. 침 시술 시 수반되는 통증을 임의로 조절하여 마치 침을 맞아서 아프면 의사가 일부러 침을 아프게 시술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침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아들의 대사에서 보이는 침 시술의 양면성-치료도구로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도 하는-이 있다. 침 시술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작용으로 보고 되고 있는 것은 심장압전이 보고되었다¹⁵⁾. 흉골공은 흉골관의 불완전개합으로 선천성 기형으로 약 5~8%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보통 4번째

늑골간 사이 위치에서 주로 발생하여 경혈 중 단중(CV₁₇)의 위치와 일치한다. 자침으로 인한 심장압전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의 흉골공(sternal foramen)에 대한 해부학적 인식이 없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침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¹⁶⁾. 그러나 침을 시술하는 사람은 의학적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수반된다.

침 시술의 위생 문제는 영화인 설문 응답에도 언급된 바 있는데 이 역시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아들에게 건네받은 침통은 불에 그을리기도 하고 먼지가 수북해 보이는 침통 안에서 침 하나를 바로 꺼내들고 허벅지 부위에 바로 시침한다. 실제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일회용 침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무료봉사라는 미명하에 무면허 시술자의 의료행위는 용인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중에 관객으로 하여금 심정적으로 용인하게끔 하고 있다. 침 시술은 다른 치료와 달리 의사-환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시되는 치료 방법으로 시술 과정에서 병력청취 및 내면적 소통 등 의사-환자와의 상호 교류가 많이 일어난다¹⁷⁾. 《黃帝內經·素問·五臟別論》에서 “惡於鍼石者 不可與言至巧”, “病不許治者 病必不治 治之無功矣”라 하여 의사를 믿지 않는 경우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의사에 대한 신뢰는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듯 무료 봉사라는 이름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행위는 금전적 대가와 상관없이 의료제도 속에서 의료인에 한해 이뤄지게 제도화 되어 있다. 근본적인 의료체계가 흔들리면, 무분별한 치료 행위 혹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은 다시 국민들에게 부가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동양적’ 답론은 동양에서 오히려 애매모호한 위치를 차지한다. 영화적 현실에서도 ‘동양적’인 것은 청산해야 할 봉건 잔재로 치부되기도 했고, 근대를 치유할 무슨 신묘한 비방까지는 아니어도 근대의 질병에 맞서고 근대를 건설하게 할 보약 차원의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했다¹⁸⁾. 이러한 ‘동양적’인 것들에 대해 관념이 아닌 현실과 미래 삶의 원리로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¹⁸⁾처럼, 한의학이 주는 환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체에 대한 한의사들의 고민과 역할이 이 연구에서 나아

가고자 했던 침의 또 다른 의미 확장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겠다.

V. 결 론

영화 『마더』 속에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소재 중 ‘침’에 관련된 영화적 의미와 여기에서 확장된 새로운 ‘침’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영화인 19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 방식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영화 『마더』에서의 불법 침구사 및 침이라는 소재는 영화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침은 곧 경제적 도구이자 대인관계의 매개체,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이며, 또한 영화 마지막 주제를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또한 향후 영화적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침의 확장된 의미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조절 도구이자 전통적이면서도 진근대적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주술적 영역과 현대에서도 유효한 치료도구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 한국적이면서도 여러 상징성을 갖는 가능성에 답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 속에서 사용된 침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간과하였던 침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였다. 영화 속에서 침 의미의 확장은 단순히 영화적 소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방치료 전반에 대한 대중매체의 인식을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대상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일반인, 한의사의 인식 또한 반영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한의학적 도구에 대한 의미 확장이 치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감사의 글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해 준 19명의 영화인들과 설문지 분석을 도와준 경희대학교 07학번 김준원, 그리고 좋은 영화를 만들어준 봉준호 감독과 제작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VII. 참고문헌

1. 張金燕. 《大長今》裏的藥膳與保健. 東方食療與保健 : 2006 ; 42-3.
2. Johnson T. Shattuck lecture—medicine and the media. *N Engl J Med.* 1998 ; 339 : 87-92.
3. Chapman S, McLeod K, Wakefield M, Holding S. Impact of news of celebrity illness on breast cancer screening : Kylie Minogue’s breast cancer diagnosis. *Med J Aust.* 2005 ; 183(5) : 247-50.
4. Linde K, Witt CM, Streng A, Weidenhammer W, Wagenpfeil S, Brinkhaus B, Willich SN, Melchart D. The impact of patient expectations on outcomes in fou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acupuncture in patients with chronic pain. *Pain.* 2007 ; 128(3) : 264-71.
5. Chae Y, Kim SY, Park HS, Lee H, Park HJ. Experimentally manipulating perceptions regarding acupuncture elicits different responses to the identical acupuncture stimulation. *Physiol Behav.* 2008 ; 95(3) : 515-20.
6. Klein C. Why American studies needs to think about Korean cinema, or, transnational genres in the films of Bong Joon-ho. *American Quarterly.* 2008 ; 60 : 871-98.
7. Mark Russell, “Unlike His Peers, the Director Bong Joon-Ho Likes Ideas and Metaphors,” *New York Times*, May 28, 2006. Available from : URL : http://www.nytimes.com/2006/05/28/movies/28russ.html?_r(accessed March 8, 2007).
8. Moon J. The Meaning of Newness in Korean Cinema: Korean New Wave and After. *Korea Journal.* 2006 ; 46 : 36-59.
9. 곽수정, 전승규. 영화 오프닝 타이틀디자인에서의 오브제 등장과 변화—007메인타이틀은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002 ; 46 : 160-1.
10. 신미숙. 영화 <마더>에 투영된 한의학의 ‘젯빛’이
 미지. *한의학신문* (accessed June 29, 2009). Available from: URL: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46685&page=/subpage/search.php&nowpage=1&search_word=마더&search_key=all&sadop_date=--&eadop_date=--.
11. Ding X, Yu J, Yu T, Fu Y, Han J. Acupuncture regulates the aging-related changes in gene profile expression of the hippocampus in senescence-accelerated mouse (SAMP10). *Neurosci Lett.* 2006 ; 399(1-2) : 11-6.
12. Peng WN, Zhao H, Liu ZS, Wang S. Acupuncture for vascular dementia.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7 ; (2) : CD004987.
13. Manheimer E, Zhang G, Udoff L, Haramati A, Langenberg P, Berman BM, Bouter LM. Effects of acupuncture on rates of pregnancy and live birth among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satio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J.* 2008 ; 336(7643) : 545-9.
14. Park H, Park J, Lee H, Lee H. Does Deqi (needle sensation) exist? *Am J Chin Med.* 2002 ; 30(1) : 45-50.
15. Halvorsen TB, Anda SS, Naess AB, Levang OW. Fatal cardiac tamponade after acupuncture through congenital sternal foramen. *Lancet.* 1995 ; 345 : 1175.
16. Birch S, Hesselink JK, Jonkman FA, Hekker TA, Bos A. Clinical research on acupuncture. Part 1. What have reviews of the efficacy and safety of acupuncture told us so far? *J Altern Complement Med.* 2004 ; 10(3) : 468-80.
17. Liu T. Acupuncture: what underlies needle administration?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09 ; 6(2) : 185-93.
18. 이육연. 동양적인 것의 두 운명: 장이모와 리안의 영화. *창작과비평.* 1995 ; 90 : 292-302.

부록

영화인 대상 설문지

- 나이: • 성별:
- 영화 관련 담당 업무 분야 ()
 - ① 연출, 기술 스태프 등 영화 제작 담당 ② 평론 담당 ③ 영화 관련 전공 학생 ④ 기타:
- 영화 관련 업무 경력 기간:

Part 1. 영화 『마더』에서 ‘침’이 영화적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 이 영화에서 ‘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영화 전개 상 어떠한 도구(소재)로 사용되었는지, 본인의 의견을 형식, 내용 등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써주셔도 좋습니다.

2. 아래에 제시된 것은 『마더』에서 ‘침’이 등장한 몇몇 장면들입니다. 각 장면들에서 ‘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 사진관 / 밤

화면가득, 하얗고 탐스러운 여자의 엉덩이가 보인다. 허리와 엉덩이의 경계선 쪽에 침을 탁 - 놓는 붕대감은 손가락 ... 능숙한 손놀림이다. 손때가 예쁘게 묻은 꽃무늬 양철케이스에서 침을 계속 꺼내는 엄마.

엄마 : 안 아프지?

사진관 여자 : 네 ... 괜찮아요

엄마 : 저기 이거 침, 내가 침 안 아프게 놓고, 돈 안 받을 테니까 ... 나 돈 좀 꿴

사진관 여자 : 예?

엄마 : 급하게 좀 필요해서 ... 그러구 내가 이자 대신 약 지어주께. 이자 대신

사진관 여자 : 약요?

엄마 : 그래. 애들어서는 약 ... 최고 신통한 걸루다

사진관 여자 : (쓱스러운 듯) 아...

(2) 약재상 - 앞 길

화면 가득, 실핏줄이 보이는 커다란 두 눈 ... 뭔가 불안 초조한 엄마의 얼굴이 보인다. 맞은편에는 40대 후반의 여사장이 간간한 눈빛으로 엄마를 훑어보고 있다.

사장 : 도준 엄마, 요즘두 침 놓으러 다니시는구나. 야매로

엄마 : 아이구 ... 무슨 ... 큰일 날 소리

사장 : 우리 애 아빠가 공무원인데, 큰 일 나는거 알죠?

엄마 : 아유 그럼요, 알아요 ...

사장 : 이번에 승진할건데 이런 일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맙시다.

면허도 없이 그러구 다니다 누구 입이라도 확 돌아가봐 ... 끝장이지 ...

엄마 : ... 네네 ...

사장 : (약재 만져보며) 장녀삼 애는 왜이래? 언제 들어온거지 이거?

철새없이 까칠하게 잔소리하는 여사장을 향해 연신 굽신굽신 하면서도, 엄마의 불안한 시선은 여사장너머 가게 앞 도로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 사진관 앞 강아지랑 놀고 있는 도준에게 남형사가 다가와 말을 걸고 있기 때문. 말의 내용은 들리지 않고, 남형사를 쳐다보는 도준의 명 - 한 얼굴만 보인다.

(3) 가정집

몸 여기저기 침을 꽂은 채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두 명의 아줌마.

꽃무늬 침통에서 침을 더 꺼내며 두 여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엄마.

아줌 1 : 개 아버지두 일찍 뒤흔다네. 중학교뎌가

엄마 : 엄마는 도망?

아줌 2 : 일찍감치 날랐겠지.

아줌 1 : 어린 것이 대단해. 혼자서 할머니 모시고.

아줌 2 : 무지 외로왔겠다

(4) 교도소 1

잠시 비틀 - 하다가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다시피 하는 엄마. 맞은편의 도준은 오히려 무덤덤한 표정이다.

엄마 : 흐흐 ... 오죽하면 내가 이눔아 ...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

너는 난데 ... (흐느끼며) ... 세상천지에 너하고 나하고 ...

도준 : ...

엄마 : 근데 ... 다섯 살짜리가 어째 그걸 기억을 하니?

흐느끼는 엄마를 웬지 무심하게 바라보는 도준 ... 면회실에 흐르는 불편한 침묵

엄마, 갑자기 울음을 뚝 - 멈추며 미친듯이 가방 속을 뒤지기 시작한다.

엄마 : (꽃무늬 침통을 꺼내며) 침 맞자

도준 : 왜 ?

엄마 : 나쁜일, 끔찍한 일, 속병나기 좋게 가슴에 꼭 맺힌 거 ...

깨끗하게 풀어주는 침자리가 있어. 허벅지 대봐.

도준 :

엄마 : 나만 아는 침자리야. 오금쟁이 위로 다섯 치, 거기서 세치.

완전히 낮이 나간, 미친 사람 눈빛의 엄마 ... 정신없이 중얼대며 침통에서 침을 꺼내든다.

당황스레 바라보던 교도관, 엄마의 팔을 붙잡으며

교도 : 어머니 잠깐만 ...

엄마 : 종도 삼촌, 우리 애 속병 난 거 봤잖아... 한번만 줘 봐 줘.

도준 : (나지막히) ... 왜 ... 침놔서 죽이게?

엄마 : ...!!

가슴이 철렁 내려앉듯, 다리에 힘이 풀리는 엄마, 침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도준 : ... 앞으로 오지마 엄마 ... 와도 안 만날거야.

문을 팡 - 닫으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도준. 면회실을 감싸는 잔인한 정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엄마의 눈망울이 가늘게 떨린다.

(5) 교도소 2

도준, 문득 양 손 손가락들을 관자놀이로 올리더니 꺾뺨 누르며 돌리기 시작한다.
괴이한 손동작에 맞춰 괴상하게 일그러졌다 펴졌다 하는 도준의 눈과 얼굴
갑자기 엄마도 손을 올려 관자놀이에 비슷한 동작을 하며 ...
이상한 동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

변호사 : 허허 ... 그거 무슨 ... 체조 같은 건가 ?

엄마 : (쑥쓰) 아니에요, 이게 일명 저주받은 관자놀이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는 건데 ... 이거하면 기억이 이렇게 쑥쑥 잘 난다고 ...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예요, 일종의 지압 같은 거예요

(6) 고물상

엄마 : 예, 저는 해민원이라구, 한의학 봉사단체에서 나왔어요 ...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무료 진맥도 봐드리고,

노인 : 무료?

엄마 : 침술 봉사도 해드리고 ... 여러 가지루 ...

노인 : 아 ! 내 들어봤어, 해민원 ... 아무튼 온 김에 얘기나 실컷 합시다

아이고 추위라 추위

대화 중에도 주변을 계속 살피보는 엄마... 온갖 물건들이 거칠고 어지럽게 쌓여있는 실내.

엄마 : 저기 ...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노인 : 내가 딱히 아픈 데 없구 ... 요즘 심장이 안 좋습니다

엄마 : 심장이요?

노인 : 사실 내가 이 최근에 못 볼 걸 확 봐가지고,

이 나이에, 너무 놀래서, 온몸이 그냥, 몸에 기가 짝 !

내가 최근에 못 볼 걸 봐가지고 ! 몸에 기가 짝 - 다 빠졌어 그거 땀에 ...

엄마 : 잘 됐네요! 저기 ... 나쁜 일, 끔찍한 일, 속병나기 좋게 가슴에 꼭 맺힌거 ...

깨끗하게 싸 - 악 풀어주는 침자리가 있거든요 ? 허벅지쪽에 ...

노인 : 아, 허벅지! 바지 벗으까?

엄마 : (당황) 아뇨 저기 ... 잠깐만요 ... 준비부터 좀 하구요

가방에서 꽃무늬 침통을 꺼내는 엄마, 긴장된 눈빛으로 백발 노인을 주시하며...

엄마 : 근데 무슨 ... 교통사고라도 보셨나요?

노인 : 궁금하지? 그지?

(7) 버스정류장

큼지막한 쉼터 주머니에 손을 넣는 도준 ...

도준 : 아차 ! 엄마 그리고 이것 두, 뭐 ... 줄 거 있어

엄마 : 뭘데

뭔가 시커먼 것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엄마의 손에 슬그머니 쥐어준다.

도준 : 저기 그 고물상 갔다가 이거 주웠는데

엄마 : ... !

그것은 ... 불에 새까맣게 그을린 엄마의 꽃무늬 양철 침통이다.

검댕이 지워진 부분에는 원래의 알록달록한 꽃무늬가 선명하게 보인다

도준 : 이거 ... 아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엄마는 ...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로 도준을 바라보는 엄마.

침통을 손에 쥔 채 ...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 엄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도준의 눈빛이 고요하고 차분하다.

(8) 관광버스 안

국도를 마구 달리는 버스. 트루트 디스코가 신나게 쿵짝거리는 가운데, 특유의 관광버스 춤을 흥겹게 추고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들.

엄마는 파르스름 낫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손에는 시커멓게 그을린 침통을 쥐고 있다.

문득 침통의 뚜껑을 여는 엄마, 침통 속 가득히 들어있는 침들이 보인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침 하나를 집어 드는 엄마.

가만히 치마를 걷어 올리고는, 힘없이 새하얀 허벅지 안쪽에 침을 가져간다.

출렁출렁 흔들리는 고속버스 ... 그곳에 침을 찌르는 순간 ...

화면 바뀌면 ... 춤추는 사람들 틈새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엄마가 보인다.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조금씩 춤을 추며 아줌마들 틈으로 뒤섞이는 엄마

3. 위에서 제시된 장면 이외에 '침'과 연관된 다른 장면에 대한 생각, 혹은 그밖에 위에서 언급하지 못한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써주세요.

Part 2. (영화 『마더』와는 상관없이) 다른 영화에서 '침'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영화적 소도구로 쓰일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드는 영화에 침이 등장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진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을지,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Part 3. 영화 『마더』에서의 침 그리고 영화에서의 한의학적 소재에 대한 객관식 문항입니다. 가장 적절한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 영화 『마더』에서 '침'은 영화적 전개를 위한 소재로서 중요하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영화 『마더』에서 매우 인상적인 '엄마'의 캐릭터에 침술사라는 직업이 영향을 미쳤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영화 『마더』에서 ‘엄마’의 직업이 침술사인 것은 이야기 전개상 중요하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영화 『마더』에서 ‘엄마’의 직업이 침술사인 것 또는 침놓는 행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영화 『마더』에서 ‘엄마’의 직업이 침술사인 것 또는 침놓는 행위가 영화의 주제적인 측면에 영향이 크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영화 『마더』를 통해 침 및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했다고 생각하는가?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했는가?
 ① 긍정적->부정적 ② 부정적->긍정적 ③ 변하지 않았다(여전히 긍정적이다.)
 ④ 변하지 않았다(여전히 부정적이다) ⑤ 별 관심이 없다

8. 영화 『마더』에서 ‘엄마’는 무면허 침구사로 묘사되고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세계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이 한국에서 침 시술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침이라는 의료 시술 정서가 부정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향후 한의학적 소재가 영화에 사용된다면 흥미로울 것 같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영화 『마더』에 대한 평점을 0~100점으로 한다면?
 _____ 점